

남북통일논의의 기독교 내러티브윤리적 접근*

이장형 (백석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남북통일논의와 기독교 내러티브공동체

1. 남북통일에 대한 기독교 내러티브 구성
2. 내러티브윤리적 방법과 내용

III. 통일내러티브의 전개와 수용

1. 통일콜로키움을 통한 내러티브 전개
2. 통일 의식 관련 설문을 통한 내러티브 구성

IV. 나가는 말: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과 통전의 연대감 형성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6.05>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6787).

• ABSTRACT •

Christian Narrative Ethical Approach for Reunification in Korea

Lee, Jang-Hyung(Baekseok University)

The narrative of unification Korea Christian community can be approached in two dimensions of the Church and the Christian intellectual community. The evaluation of Christian ethics for the unification narrative, however, will be able to provide richer episodes about unification through the scope of narrative ethics rather than other methods. To begin with, narrative ethics puts priority to the story that has a church community goes than the doctrinal rigidity. Secondly, it provides easier way to approach the truth through various discourses which reflects the situation of communities rather than ideology or system as Harbermas has discussed about this. Thus, the concepts and approaches of narrative ethics does not only have the dynamic spectrum of unification stoires, but it is also able to suggest the appropriat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issue of unification of Korea.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unification in terms of narrative ethics.

Key words: Christian ethics, Christian culture, Narrative Ethics, Reconciliation, Dialogue

I. 들어가는 말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 공단 남한 기업들의 철수,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의한 공포정치 지속 사태는 또 다른 군사적인 긴장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통일은 여전히 상당히 먼 곳에 있다는 정치적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게다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동의 등은 한반도와 주변 동북아시아 전체에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던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퇴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 통일을 위한 열정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필요할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외교적 논의 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방법론 모색이 필요하다. 신학적 접근도 통일 논의의 한 가닥이 되는데, 그동안 신학적 통일논의는 통일에 대한 정치신학적 논의 및 진보 이념을 바탕으로 한 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적 보수신학의 논의로 양분된 경향이 있다. 물론 중도의 길을 모색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등장했지만 상징적 논의에 그치고 결국에는 양자 중 하나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담론 도출을 위해 내러티브 방법론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내러티브 방법론은 이념 등 사상보다는 이야기 자체에 충실한 논의법이다. 즉 통일에 대한 논의가 외면되는 상황 속에서 논의 자체를 시도한다는데 일차적 의미를 두고 통일에 대한 이론과 그 해석

및 적용은 독자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내러티브 방법론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 통일논의에 임하는 다양한 자세 등을 함께 이야기로 공유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정책과 비전 등을 부수적으로 창출하는 방법론이다. 정형화, 체계화된 논의가 형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이 통일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집단지성의 담론을 형성했다는데 일차적 의미를 둔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은 이후 새로운 내러티브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이런 시도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언급된 내러티브는 9명이 참석한 집단 콜로키움, 설문조사를 통한 15명의 관련 전문가담론이 진행되었다.

1. 통일논의의 내러티브 윤리적 접근 배경

남북분단의 상황이 가져다 준 여러 폐해들을 생각할 때,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며, 극복되어야 할 모습인 것이 분명하다. 특히 현재의 남한 상황은 통일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인해, 통일 뿐 아니라 남북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에 대한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 논의의 내러티브윤리적 접근배경은 다음과 같다.

1) 극도로 축소된 통일논의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는 이념적 대결이 첨예한 국제사회 분위기와 함께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친북적인 것으로 몰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한국사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일에 대한 물고가 띄어졌고 한때는 금강산 관광 개방 및 개성 공단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절되기 시작된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극단을 치닫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러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대결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극도로 축소된 상황이 되고 있다. 한 때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학자들의 공동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교류를 찾아보기 힘들다. 논의의 영향력 등을 말하기에 앞서서 논의 자체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영해 준다.

2) 북한 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

남북한의 교류협력 분위기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사회 부적응, 중국 등에서 발생하는 이탈주민의 강제송환 및 재입북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한은 통일 이후에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통일의 문화적, 경제적 갈등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달리 말해 장기간의 분단으로 일어난 이질화와 갈등 극복을 위한 단일공동체 구성이라는 과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통일(Unification)과 통합(Integration)을 정치(정치적 실체)·경제(재화 용역 소비)·사회(가치 규범적 통합, 기능적 통합)·문화(언어, 풍속)·기타 심리적 정신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이런 사고는 모든 분야에서 통일 역량을 비축할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듯 ‘법의 통일, 땅의 통일’은 통일의 제1단계 일뿐이며, 전우택 등의 지적처럼 제도의 통일만이 아닌 사람의 통일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통일이 완성되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다.¹⁾

3) 통일 후 사회에 대한 준비

이런 면에서 통일 후의 갈등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통일의 완성과 성취를 위한 밑거름이기도 하다. 남북 분단이라는 현상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의 원인들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갈등과 대립은 통일 이후에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일 전후 사회에서 화해, 용서, 사랑, 평화를 지향하는 기독교 정신은 '마음의 통일'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남한 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통일은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사실은 남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²⁾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인적 교류와 자원의 이동 등은 새로운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대비는 단순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중요한 통일 논의가 되어야 한다.

4)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논의 필요성

현재 상황에서 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사실 한반도의 핵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조재길은 2006년 핵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한반도의 핵문제를 미국의 패권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 전략이 반세기 이상 맞서온 정전상태인 한국전쟁의 막바지 대결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³⁾ 이런 이해는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대로

1)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서문 17.

2) 위의 책, 496.

3) 조재길, 『북한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파주: 한울, 2006), 7. 그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핵 개발의 저지에 초점을 모으는 보수진영의 논리와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이들의 긴장은 여전하며, 핵 개발의 원인조차도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포용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또 다른 쪽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 분위기가 초래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공존하고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는 평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정당전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도 발생했을 때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든 것들의 공멸을 초래하는 핵전쟁에 대한 논의가 담겨져 있다.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는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에 주목해서는 안 되며, 핵전쟁의 억제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에게 이미 개발된 핵무기 관련 능력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핵무기 자체에 대한 관심을 평화로 가져가야 한다.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핵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평화적이라는 전제를 붙여야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이라는 독특한 체제를 갖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문제와 핵을 연결 시키는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경제문제와 핵문제는 내적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분리시켜 전개해야 북한을 세계무대로 나오게 할 수 있으며,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게 한다. 정전체제라는 독특한 상황이 한반도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조재길의 견해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해결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각국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경제협력은 경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섯째,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제와 비핵지대화를 지향해야 한다. 위의 책, 486 - 491.

4) 조재길의 경우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다. 위의 책, 487.

II. 남북통일논의와 기독교 내러티브 공동체

1. 남북통일에 대한 기독교 내러티브 구성의 필요성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개하는 논변에는 다양한 이념과 방법론이 동원될 수 있다. 막연히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경제사회학적 이익이론까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데, 왜 기독교 내러티브 방법론이 등장하는 것일까? 통일 내러티브가 줄 수 있는 다양성과 통일 정책의 일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생겼다. 즉 통일정책에는 일관성이 필요하지만, 내러티브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스테판 니더하프너는 독일과 한국의 통일전략을 비교하면서 통일은 협력으로 시작되지만, 협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근대국가들의 통일에 있어서는 국가를 통합하려는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있어야 하며, 공동의지는 공유된 혹은 공동의 정체성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공동의 정체성의 근간을 언어, 종교, 전통, 거대서사(그랜드 내러티브)등으로 보고 있다.⁵⁾

변경원은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가 말하는 내러티브와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난의 내러티브’는 현실적 고통이 이미 텍스트에 고착된 ‘한 말’을 의미한다. 읍기 텍스트가 그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난의 내러티브’는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고통의 스토리’는 아직 텍스트로 고정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말한다.”⁶⁾ 그러나 필자가 말하는 내

5) 윤영관 편저, 『한반도 통일』(서울: 늘봄, 2013), 119.

6) 변경원, “텍스트의 고난과 현실적 고통의 만남을 통한 비판적 프로세스의 생성: 리쾨르의 형상화 개념을 통한 읍의 ‘내러티브’와 세월호 ‘스토리의 만남,’” 『기독교사회윤리』 제35집(2016), 199.

러티브는 스토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는 일관성이 없는 듯하나 결국에는 일관성을 담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본다.

또한 내러티브 윤리가 주는 강점은 이념을 넘어서는 역동성에 있다. 예를 들면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우리사회에서는 독일 통일과 그 과정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통일정책 및 통일 후 통합된 사회구조 형성을 위한 여러 방면의 준비 필요성이 재인식되면서 다양한 통일 내러티브들이 등장했다. 독일통일 이야기는 '갈등과 대립'이라는 극단적 사회 분위기를 '화해와 상생'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이것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2010년 우리사회는 남북분단 60년을 맞이하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자유로운 통일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분위기에서 다양한 통일에 대한 생각이 제한 없이 표출되는 본격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달리 말해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전후 세대의 통일 논의가 확대 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2011년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지역의 장기집권 독재국가의 민주화운동과 사회주의 체제 붕괴는 북한지도자 김정일의 사망 후 북한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물론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추구한 햇볕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았고, 대립과 갈등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신뢰 프로세스'로 표현되고 있는데 남북의 대립은 극에 치닫고 있다. 이렇듯 정권이 바뀌면 덩달아 춤을 추는 듯한 통일정책과 정치적 이념들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에 좌절감을 가져다주기 쉽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내러티브 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종교계의 몫이 크게 요청되는 것으

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남북 분단 후 종교 사이의 대화를 보거나 비중을 놓고 볼 때 기독교의 위치는 쉽게 폄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만식이후 함석헌, 문익환 등으로 대변되는 통일 운동은 이데올로기를 넘어 정신적이면서도 실제적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통일 운동은 종교적 한계보다 독특성으로 한국 사회에 그 지침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 통일 관련 논의 및 연구에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의 관련성 및 신학적 정신을 간과한다면 지극히 피상적인 담론에 그칠 수 있다. 기독교신학과 윤리적 차원의 논의가 다시금 통일논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 내러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기독교의 종교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기여할 일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연구는 주제에 대한 이념적 접근과 논의에서 벗어나 다원 종교사회인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즉 단순한 기독교의 사적 연구나 교파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와 종교성 일반 및 특수성을 아우르는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러티브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통일 및 통합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해야 한다.

2. 기독교 내러티브윤리적 방법과 내용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 내러티브는 교회 공동체와 기독 지성인 공동체라는 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 내러티브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평가는 다른 방식보다는 내러티브 윤리를 통해서 할 때 더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윤리는 교리적 경직성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 우선적 관심을 두는 윤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하버마스의 철학 등에서 볼 수 있듯 굳어진 이념이나 체계보다는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논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러티브 윤리 개념과 접근은 매우 역동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통일 문제를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에는 가장 적합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일 논의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과 통합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내러티브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통일이란 것인가라는 물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분리된 것들의 합침’ 혹은 ‘분리된 것의 재결합’이라 답하는 것이다. 반면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조직이나 기구 뿐 아니라 행위자인 인간들에게로 관심을 전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새로운 하나의 행위자로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떻게 남북한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지성인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의 관심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주목하게 되고, 기술적인 문제는 이차적인 관심이 되는 것이다. 갈통은 기술 보다는 지식인에게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핵무기로 인한 대결구도를 푸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미 발명된 기술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그의 주장은 핵무기의 생산지식이 있다 해도 과거의 피라미드가 과학기술의 거대한 업적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⁷⁾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닌 지식인 들인 것이다. 내러티브 윤리 자체가 갖고 있는 실용적 특성에 대한 허버마스의 언급은 담론윤리를 통한 통일논의의 적정성을 확보해준다고 볼 수 있다.

7) Johan Galtung, 손대준 역, 『평화를 위한 선택』(서울: 신영미디어, 1997), 304.

담론윤리가 절차개념의 도움을 받아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義務윤리들과 선善윤리들로 분리되어 취급되고 있는 정의와 일반복지의 양상들 사이의 내면적 연관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기대해도 좋은가가 이러한 고찰들로 해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실천적 담론은 비개연적인 실용주의적 특성들을 토대로 이성적 의사형성을 보장할 수 있다.⁸⁾

남북 관계와 통일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신뢰의 결여로 생기는 걸림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신뢰가 모든 신뢰를 폐기하도록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위르겐 몰트만이 “진실성을 얻으면 신뢰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⁹⁾고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실과 신뢰’라는 화두로 남북의 주요 내러티브들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 기대와 희망의 윤리’로 보는 남북통일 문제 이해도 필요하다. “악용함이 유용함을 폐기하지 않는다”(Abusus non tollit usum)는 말처럼 남북의 경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과거적인 불신과 불편함이 야기된 내러티브, 상황이 모든 해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내러티브 해석의 틀을 새롭게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 통합에 대한 개념, 남북한의 다양한 통일교류 경험, 탈북자들의 삶을 통해 공유되는 일종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경험 등에서 기독교윤리적 내러티브가 생산되며, 이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로, 기독교 내러티브 윤리가 갖는 의미의 통일논의에의 적용가능성이다. 내러티브윤리를 강조한 스탠리 하우워즈는 복음의 사회적 의의를 주장하려면 기독교적 확신이 내러티브 구조를 지닌다는 사실에 유의

8) Jürgen Habermas, 이진우 역, 『담론윤리의 해명』(서울: 문예출판사, 1997), 25.

9) Jürgen Moltmann, 곽혜원 역, 『희망의윤리』(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2).

해야 한다는 점과 사회의 기본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든 간에 사회윤리는 내러티브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¹⁰⁾ 이런 면에서 내러티브 윤리를 통일논의에 적용하여 다양한 통일논의를 산출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윤리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이다.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내러티브가 생성되며,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남북관계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깨어진 관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러티브가 산출될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란 경직된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이며 생동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북 사이의 신뢰가 허약함을 넘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이들이 많지만, 실망스러운 신뢰가 모든 신뢰를 폐기하도록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적의로 가득 찬 상황이지만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결국, 그동안 산출된 다양한 내러티브를 포기하지 말고 신뢰의 틀에서 재해석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에는 존재의 진실을 알려주고 자기기만을 향한 끝없는 유희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내러티브가 있어야 한다”¹¹⁾는 하우워즈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통일내러티브의 전개와 평가

이 장에서는 통일 내러티브를 기독교윤리차원에서 정리해보고 전개하기 위해 기독교윤리학 및 인접학문의 학자들과의 몇 차례의 콜로키움을 통해서 그리고 질문지에 대한 답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10) Stanley Hauerwas, 문시영 역, 『교회됨』(서울: 북코리아, 2010), 28-32.

11) 위의 책, 45.

매우 기본적이고 평면적인 구성이지만 통일이라는 주제로 다수의 전문연구자들이 담론에 참여하였다는데 일차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1. 통일콜로키움을 통한 내러티브 전개

필자는 전문가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집단의 내러티브를 확보하였다. 콜로키움에서 교차 질문과 의견을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기독교통일내러티브의 특징을 재구성하였다.¹²⁾

첫째, 기독교 통일내러티브는 남남갈등의 전형적 모습이다. 한국사회 특히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에 관한 논의조차 좌우, 진보·보수, 친미·종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간헐 갈등과 평행하고 있어서 남남갈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통일내러티브의 폭력성 또는 정복적 요소가 있다. 보수주의 전통 속에서는 통일을 땅의 회복으로서의 통일담론, 통일사역, 통일비전을 지향하는 모습 속에서 통일 의식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셋째, 통일내러티브는 교회현장에서는 불편한 것이다. 통일보다는 교회성장의 화두가 절실하게 이뤄진다. 인구감소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민족적 공동담론주제인 통일보다는 현재의 생존이 더 다급하다. 그래서 통일내러티브를 강단 또는 구역모임 등에서 언급하기가 어렵다.

넷째, 북한연구가 제한적이므로 중국기독교, 중국교회와 사회주의, 공산당과의 관계를 주목할 있다. 왜냐하면 남북 교회협력의 우회의 길로서 중국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내러티브를 위해서는 서구의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만남과

12) (회의 일시: 2014. 6. 23 오후), 콜로키움의 참석자들은 기독교윤리학 또는 인접학문을 전공한 학자들로 콜로키움 현재 대학 교수, 강사,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다.

갈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는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만남을 기억하거나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 특히 1920~30년대의 사회주의 발흥과 기독교의 쇠퇴 등의 경험은 통일내러티브의 다양성을 제약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내러티브는 미래지향적일 때만 가능하다. 남과 북의 물리적인 하나 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 통일 후 우리사회의 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통일 내러티브는 이런 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붙잡혀 대화의 상대자를 부정하거나 모독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나 북한지역을 각 교단별 교회별로 할당해 놓고 접근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특징을 정리해보면 우선 통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내러티브 가운데 특히 기독교내러티브들의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기 보다는 국가체제와 같은 방향으로 양산되거나 통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내러티브에서 폭력성과 정복욕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체제를 넘어선 기독교 내러티브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모욕하지 않는 통일내러티브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역할과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결도 그 저변에는 북한의 모든 핵계획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방식의 폐기 (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ismantlement: CIRVD)’를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의 해소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¹³⁾

13) 조재길, 『북한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파주: 한울, 2006), 19.

2. 통일 의식 관련 설문을 통한 내러티브 구성

통일관련 내러티브 속의 기독교인들의 통일의식을 살펴보고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학계의 여러 학자들에게 통일의식관련 설문을 면담 또는 전자우편 교신의 방법으로 확보하였다. 그 설문지 내용과 그에 대한 답을 비실명으로 요약해 게재함으로써 일군의 기독교학자들의 집단 통일 내러티브 형성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설문내용

설문지

평안하십니까? 백석대학교 000입니다. 본인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남북통일논의의 기독교 내러티브윤리적 접근”과 관련하여 지난 번 자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논문을 준비하면서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①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독교’ 또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② 현재 한국 기독교가 ‘통일’을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③ ‘독일 통일’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④ 귀하의 신학 중 ‘통일담론’에 적용 또는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혹 다른 신학자의 사상, 이론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급해 주셔도 됩니다.)
- ⑤ 그 외 기독교의 ‘통일담론’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응답 1.

①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독교’ 또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간의 관계가 경색되고 차단되어 있을 때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남북에 전하는 것이다.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지원을 감당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의 북한교회 재건의 방향을 교파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정OO(연세대 교수)

— 남북통일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의 우선적 역할을 위한 통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한계를 극복할 민간차원 통일 논의와 교류 활성화, 정치적 통일을 넘어서는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통일 지향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조OO(한남대 교수)

— 하나 될 교회의 비전, 복음공동체 세우기, 성경적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야말로 성경의 공동체이자 예수 내러티브를 구현해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우어워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교회는 예수 내러티브(Jesus Narrative)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남한 혹은 북한을 막론하고 예수 내러티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기독교 통일담론에 적용할 근거는 충분하다.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세력은 다름 아닌 ‘교회’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한 교회 세우기는 ‘무너진 성전의 수축과 예배의 회복’이며, 남한의 교회 세우기는 교회다운 교회되기 즉 교회의 교회됨을 통한 ‘교회세우기’를 뜻한다.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교회되기 혹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세우기’를 지향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OO(남서울대 교수)

—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일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등과 북한을 위해서는 인도적인 사업 전개와 확대가 필요하다. **김OO(호남신대 교수)**

— 통일이후 차별이나 편견없이 함께 살아갈 북한 주민과의 하나됨을 위한 교육적 노력과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이OO(호남신대 교수)**

—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통일을 위해 필요한 일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평화의 근본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이를 남북관계에서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기독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고 생각한다. **김OO(서울신대 교수)**

— 국가가 할 수 없는 제3의 길을 찾아 남북관계를 열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독교NGO 활동을 통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치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치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이를 할 수 있기 위해선 정부의 인식의 변화가 와야 할 것이다. **주OO(백석대 교수)**

— 교회가 해야 할 일 우선순위는, 통일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시켜 주는 것이다.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달 세미나나 심포지움 혹은 특강을 통해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사역자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게 하고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송OO(아세아 연합신대 교수)**

요약하면,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통일을 위한 민간교류, 특히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교류에는 한계가 있지만, 경색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현재 한국 기독교가 ‘통일’을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전략적으로 남북관계를 하는 정부와 달리 88 통일선언문을 비롯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모색해왔다. 대북인도적인 지원을 민간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 왔다.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도 정부 차원을 제외하면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정OO(연세대 교수)**

—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고 트라우마(월남 기독교인 공산주의 경험)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 역할 제한적. 정치적 상황과 분위기에 눌려 한국교회의 독자적 역할공간을 찾기 어렵다. **조OO(한남대 교수)**

— 북한교회를 복음공동체로 세워야 한다: ‘북한교회’를 말하는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 됨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속하는 비전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을 선교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우리와 대등한 대화의 상대로 볼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들은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야 하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비전 즉 하나 됨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교회가 복음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선교 전문가들이 항상 경고하는 것처럼 남한교회의 입장에서 북한교회를 다루는 관점은 가급적 피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즉 과시적인 우월주의의 표현 혹은 전시적이고 성과주의적인 일회성 지원과 관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교회세우기’에서 예수 내러티브의 공동체를 구현이라는 목적을 핵심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에는 외형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북한교회세우기와 관련하여, 남한교

회의 파트너로서 북한교회의 실체가 너무 미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¹⁴⁾ 교세통계나 교회건물의 수 혹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박해상황 등 외부로 알려진 객관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문OO(남서울대 교수)

— 미미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김OO(호남신대 교수)

— 노력이 저조하고 부분적으로만 있는듯하고 좀 더 현 상황과 긴급성을 반영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OO(호남신대 교수)

— 사랑과 희생이란 면에서 한국 기독교는 북한 돕기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계속해 왔고, 개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 다만 북한 돕기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김OO(서울신대 교수)

— 극단적 반공, 멸공에서 벗어나, 남북이 사상이 달라도 서로 만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교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기다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전투적 태도를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주OO(백석대 교수)

— 한국 기독교는 한반도의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었으며 방법은 달라도 통일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본다. 그 역할 수행에 있어 상중하로 판단한다면 중상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이 취한 민족 통일을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는 일단 크게 네 가지 통일 운동에 있어 그 역할 수행을 했다고 본다. 제1 통일운동은, 승공통일로 북진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이다. 제2 통일운동은, 평화 통일로 남북한 화평을 도모하는 통일이다. 제3

14) 박명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교회의 활동과 윤리적 과제,” 『대학과 선교』 제10집 (2006), 51.

의 통일 운동은 섬김과 나눔의 통일이다.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 같은 민족애를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 통일운동이다. 진보진영과 보수 진영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기독교 NGO 단체들과 더불어 많은 참여를 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한 통일 운동에 기독교인은 그 어느 종교보다 가장 탁월하게 섬겼고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 제4의 통일 운동은 복음 안에서 의 기도 통일이다.

복음통일, 기도통일을 추구하며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결국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통일 방안이다. 이미 기독교가 통일을 위한 방안이라 믿고 사역하던 사역들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하나님의 통일 역사를 위한 기도운동을 통해 통일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젊은 세대들은 문화통일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송OO(아세아 연합신대 교수)**

요약하면, 전문가들은 반공, 멸공의 분위기가 압도하던 시대부터 교류를 강조했고, 인도주의를 우선한 대북협력을 지속한 부분 등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의 통일운동에 대해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종교계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독일 통일’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대북지원을 교파별로, 개교회별로 하지 말고, 교회 전체의 구조 속에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의 매칭펀드를 하면 보다 크게, 그리고 정부간 관계가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OO(연세대 교수)

— 서독교회 쪽의 재정적 지원만 아니라 라이프씨히 기도운동 등 동독 교회 쪽에서의 민주화와 통일 노력이 함께 하였다. 동서독 교회의 사회로부터 공신력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독정부의 교회 통한 물자 지원, 동독정부의 교회 활동 인정 배경은 사회적 신뢰 등) 조OO(한남대 교수)

— 북한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각의 노력을 외형적인 교회건축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서는 곤란하다. 북한교회세우기의 노력 자체를 협소한 것으로 단정 지을 것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교회세우기’ 즉 예수 내리티브 공동체세우기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북한교회세우기의 역사는 짧지 않다. 예를 들어, 한기충은 해방 이전에 북한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천200개의 교회 터에 교회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문화 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단일교단, 북한교회 독립, 연합일치협력 등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3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1989년 결성된 한기충은 1995년에 ‘북한교회재건위원회’를 만들고 <북한교회 재건백서>(1997)를 발간하는 등 구체적인 재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문OO(남서울대 교수)

— 가능한 다방면의 통일운동 전개와 실질적 협력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북한 교회와 북한의 신학교육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김OO(호남신대 교수)

—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지금의 남북보다 훨씬 많은 규모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정치적 질서와 한반도의 남북관계의 적대감 그리고 양체제의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또다른 방식을 우선 고안

해야 할 것이다. 이OO(호남신대 교수)

— 통독되기 1년 전 독일로 유학을 가서 통일의 전조와 현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동독과 북한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동독 그리스도인들이 니콜라이교회에 모여 월요기도회를 했듯이 북한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열리자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독일 통일과 우리의 통일을 직접 대비하는 것은 현실성을 결여한 담론이 될 수 있다. 김OO(서울신대 교수)

— 서독교회의 동독을 위한 디아코니아, 서독교회의 동독과의 끊임없는 교류, 이념과 정치를 떠난 활동을 교회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주OO(백석대 교수)

— 독일 통일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NATO를 통한 서독의 안보체제이다. 서독은 안보와 통일과의 관계에서 안보를 우선했다. 그래서 “Security First”라는 표어가 일상화 되었었다. 이것이 동 서독간의 긴장 완화 정책의 선행조건이었다. 통일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막강한 국력을 가진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NATO의 회원국으로 남아있다. 또한 독일은 1972년 동 서독 조약이후 동서독 부서간의 30여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제 분야에 있어 제도적 형태가 마련되고 정례화 되었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남북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문화 교류라도 제도적으로 정례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 통일에 있어 동서독 간 수 백 만 명의 교류가 있었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RIAS 라디오 방송은 동독 변화에 있어 그 역할이 컸었다. 통일을 위해 북한에 바른 정보를 들여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송OO(아세아연합신대 교수)

요약하면, 통독의 경험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기대와 희망을 준 측면이 많다. 그러나 동독의 모습과 북한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분단이 동서분단과 표면적 유사성을 갖지만 통독의 경험이 비판적, 분석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엄돈재는 독일 통일의 배경을 잘못 이해하여,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을 경고한바 있다. 그는 서독이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시행한 교류협력 보다는 힘의 우위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¹⁵⁾

④ 귀하의 신학 중 ‘통일담론’에 적용 또는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혹 다른 신학자의 사상, 이론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급해 주셔도 됩니다.)

—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 차원을 의미하는데, 통일의 틀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세 축으로 해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정OO(연세대 교수)

— 이데올로기 극복의 과제 . 화해와 용서의 신학(개인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로 확대 해석 필요) . 핵무장 상황에서 ‘평화의 절대적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평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 조OO(한남대 교수)

— 분명한 것은 북한교회 세우기가 중요하고도 필요한 과제라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부터 민족복음화운동을 주도했던 한경직 목사는 북한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템플턴상의 상금전액(21억여 원)을 북한의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해달라며 기부했을 정도로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 예장총회는 ‘민족복음화운동’에 따른 북한교회 재건을 목적으로, 북한의 교회건물 재건을 위해 재원을 모았으며, ‘분단 전 북한에 존재한 3,040교회의 재건’을 추진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교회 세우기에서 ‘교회건물의 재건’은 가시적이고 상

15) 엄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19-20.

징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 자체를 두고 북한교회 세우기 전체를 마치 건축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듯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OO(남서울대 교수)**

— 삼위일체신학이 통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삼위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지듯이, 남과 북이 서로 구별되지만 한 민족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학 연구를 통하여 삼위가 일체가 되는 방식을 통일운동에 도입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OO(호남신대 교수)**

— 삼위일체와 언약사상에서 발견되는 ‘관계윤리’를 추천하고 싶다. 단순한 약속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사상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OO(호남신대 교수)**

— 소그룹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일은, 다시 말해 남북한 기독교인들의 형제자매애를 동력으로 하는 통일은 남과 북의 교회들이 ‘소그룹 단위’에서부터 통일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한다. 즉 통일이 기독교인의 공연한 담론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한 교회는 북한에 남한 기독교인들과 통일을 담론할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이 독일 통일보다 소원한 것은 기독교적 담론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논하고 추구할 북쪽의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한 교회는 대집단이 모여 기도하고 헤어지는 행사를 지양하고, 소그룹 단위로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 하고 기도하는 통일에 관심을 갖는 기독교인 저변 인구를 확대해 나가야 하다. 다른 한편으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 소그룹 형태의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갈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OO(서울신대 교수)**

— 어려운 남북관계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회적 길을 찾아야 한다

고 본다. 그것은 법과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만남과 교류에 교회는 복음적 원리에 서서 일하는 것이다.

‘이미의 통일론’은 작은 통일, 개성공단을 통일특구로 추구하고면서 특히 복음적 원리를 따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주OO(백석대 교수)**

— 통일 담론에서 적용하는 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합과 가치 안에서 복음(눅4:18-19)을 통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남북의 장벽을 뛰어넘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통전적 신학의 관점에서 통일 논의를 진행한다. **송OO(아세아연합신대 교수)**

— 요약하면, 전문가들이 통일의 신학, 이론으로 제시한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신학, 공동체 이론, 교회 형성론, 이미의 통일론 등으로 다양했는데, 전통적인 조직신학적 주제 이외에 실천신학에서 논의되는 주제로도 통일논의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논의의 확산을 기대해 본다.

⑤ 그 외 기독교의 ‘통일담론’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무엇보다도, 북한교회세우기의 개념을 넓은 뜻에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교회의 재건과 내적 부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이고 탈북자(새터민) 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이고도 통전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탈북민단체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복음적인 연대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반기독교 정책 하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공휴사역이 전개되어야 하며, 특히 하나님께서 북한에 남겨두신 그루터기 교회가 생명력을 얻도록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지혜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북한교회세우기’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교회의 재건을 건물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재건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움직임도 있다.¹⁶⁾ 통일 이후 교회재건을 위한 기금을 준비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크지만, 신앙공동체의 재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통일 이후, 자본주의와 이단 등에 의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재건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신을 복음 위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문OO(남서울대 교수)**

— 기독교 내에서 통일담론이 통일을 이루어야 남북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남한에 널려있는 기독교 통일 단체들이 정치적 입장과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나가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김OO(서울신대 교수)**

— 한국 기독교인들이 반공에 사로잡혀 복음적 통일론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통일은 단지 정치적 일로 치부했다는 점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려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실지 충분히 생각할 때 나름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작은 윤리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큰 윤리에는 마음을 쏟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게다가 대사회적 역할에서 길을 갖지 못하고 있음은 아쉽다. 중세 수도원적 탈세상적 태도를 취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제는 남북관계, 지구촌문제, 전쟁, 기아, 공해 등에 관심을 기울여 대사회적인 성경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적 신학을 여러 부분에서 정립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주OO(백석대 교수)**

— 바람직한 민족 통일방안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통일 민족’의 기본 가치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치로 이루어지는 통일안에서 하나

16) 이철신, ‘통일후 북한교회 재건’, 『만남』 (2012년 6월호, 영락교회), 2-3.

님 나라 가치에 위배되는 내용 앞에서 기독교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가 통일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기본가치가 제시되어 사회구성원들 안에서 소통되어야 한다. 만일 공유가치가 혼란에 빠지면 또다시 사회는 균열이 일어나 통일을 저해하게 된다. 민족이 통일국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통합의 핵심과제가 되는 공유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가치체계를 제시하는 일은 민족 통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갈등을 유형화 해보면 첫째, 갈등주체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 각 지역 주민들 내부, 남북한 주민들과 제외동포 간 가치갈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갈등의 형식을 중심으로 상이한 가치 간, 동질적 가치의 개념 및 목적에서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구분된다. 셋째, 갈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범적 가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전통적 가치와 시민적 가치, 배금주의와 도덕주의의 갈등, 실제적 가치에서는 민족주의 가치지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갈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따를 수 있는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남북한에 전하는 것이다. **송OO(아세아연합신대 교수)**

요약하면, 다양한 통일담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와 이들을 통한 통일담론이다. 이들은 남북통일 후의 갈등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탈북자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입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통일 후의 사회에 대한실질적인 준비가 가능한 것이다. 전우택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개개인의 필요와 노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함을

지적하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에 있어서, 필요성의 원칙, 자립능력 배양 원칙,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한 자발적 참여 극대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¹⁷⁾ 다양한 기독교관련 전공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고, 독일통일의 경험이 통일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학위를 위해 공부한 지역에 따라 그 내러티브의 역동성이 다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IV. 사회갈등 극복과 통전의 연대감 형성

필자는 통일내러티브를 생성하기 위해 통일과 관련된 집담회(콜로키움)를 개최하여 논의를 확산하며 그 주요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였고 논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통일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또한 다수의 신학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 시대 통일내러티브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의식을 살펴보았다. 콜로키움과 설문조사를 통한 통일 담론의 구상 및 재구조화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인식할 수 있는 통일 미래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선형적 사례도출로써의 의미가 있다. 이런 과정들은 통일에 대한 한국 사회 갈등 해소 논리를 개발하고, 해소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정부 주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통일정책 소통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에 동 연구결과를 반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민간통일단체 관계자, NGO, 언론인 등의 사회 각계각층과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진단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통전의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물론 전문가들의 내러티브가 일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기독교

17)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310.

교계에 기반을 둔 민간통일 단체 협력체계 모색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화해와 용서, 평화와 사랑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정신으로 통일에 대한 한국 사회 갈등 문제에 접근하여 통일 이후 야기되는 갈등 해소방안 기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주로 통일의 연구는 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 왔고, 신학 분야의 경우 선교학, 역사학 등에선 연구가 많은 편이나 기독교윤리 분야에선 괄목할만한 연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통일의 문제는 사회과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특히 기독교윤리 분야에서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담론을 도출할 때 논의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제한된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이긴 하지만, 콜로키움과 설문조사를 통한 집단 지성의 통일 내러티브 형성은 한국 사회의 기독교계 등 종교계를 향한 요구에 응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우리의 시대는 통일 논의의 지속적이며 다양한 확산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 계훈제 외(편). 『역사와 민족』 함석헌 전집 9, 서울: 한길사, 1983.
- _____.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 함석헌 전집 3. 서울: 한길사, 1983.
- 기독교학문연구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 김광식. 『종교계의 민족운동』 서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김동진. 『한반도 평화구축과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1.
- 김소영. 『한국의 정치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김영옥 외.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 김영한. 『개혁주의 평화통일신학』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
-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 남대욱. 『한반도 통일과 기독교 현실주의』 서울: 나눔사, 2012.
-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북한인권 토론회)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8.
- 문시영 옮김.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 문장순. 『북한 종교의 이해』 서울: 대명, 2007.
- 민경배.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 민경진. 『선구자들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5.
-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파주: 나남출판사, 2003.
- _____.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2』 파주: 나남출판사, 1996.
- 박세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 통일 전략』 파주: 21세기북스, 2013.
- 박세혁 옮김,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 박정수. 『기독교 신학의 뿌리: 유대교 사상의 형성과 신약성서 배경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배기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5.
-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_____. 『북한의 정치1』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_____. 『북한의 정치2』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사회문화』 파주: 한울, 2006.
- 손규태. 『개신교 윤리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염도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 서울: 나눔사, 2012.
- 윤여상·한선영. 『(2008) 북한 종교자유 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08.
- 윤영관. 『한반도 통일』 서울: 늘봄플러스, 2013.
- 윤영관 외.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서울: 한울, 2003.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이삼열 외 송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서울: 한울, 2000.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진우 옮김. 『담론윤리의 해명』 서울: 문예출판사, 1997.
- 이형기. 『성경의 내러티브 신학과 교회의 공적책임』 서울: 한들, 2010.
- 임성빈 외.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임홍배 외. 『기초자료로 본 독일 통일 20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 전태국. 『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파주: 한울, 2013.
- 정성한. 『한국 기독교 통일 운동사』 서울: 그리심, 2003.
- 조재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파주: 한울, 2006.
- 주도홍. 『통일, 그 이후(독일통일 15년의 교훈)』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統一獨逸: Deutschland Wächst Wieder

- Zusammen: 『하나이던 것이 다시 하나로』 서울: 駐韓獨逸聯邦共和國 大使館, 1990.
- 통일위원회편. 『한국교회평화통일운동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0.
- 한국기독교통일포럼. 『통일한국포럼』 인천: 바울, 2006.
- 한기양. 『한반도 통일과 기독교: 칼 바르트의 '화해론'을 바탕으로』 서울: 열린, 2011.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성남: 제일출판사, 1965.
- 허호의. 『통일을 위한 기독교 신학의 모색: 남남 및 남북 갈등과 통합적 통일신학』 서울: 동연, 2010.
- 황홍렬. “북한 선교/평화통일운동 접근방식에 대하여”. 평화와통일신학연구소 편. 『평화와 통일신학 I』 서울: 한들출판사, 2002.
- 홍병룡 옮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서울: Ivp, 2007.
- KNCC 대구인권위원회 20년사 편집위원회. 『복음과 인권: 대구지역 기독교 사회운동 20년사』 대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2003.

<학술논문>

- 박명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교회의 활동과 윤리적 과제”, 『대학과 선교』 제10집 (2006), 47-59.
- 변경원, “텍스트의 고난과 현실적 고통의 만남을 통한 비판적 프로네시스의 생성: 리콰르의 형상화 개념을 통한 옴의 '내러티브'와 세월호 '스토리'의 만남” 『기독교사회윤리』 제35집(2016), 197-222.
- 이장형. “분단 고통의 기독교 윤리적 의미와 극복방안으로서의 남북통일 모색” 『한국개혁신학』 제45집(2015), 126-153.

<번역서>

- Fullbrook, Mary. 김학이 역.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서울: 개마고원, 2000.
- Habermas, Juergen. 이진우 역. 『담론윤리의 해명』 서울: 문예출판사, 1997.
- Hauerwas, Stanley.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 Hays, Richard B. 유승원 역.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Hengel, Martin. 임진수 역. 『신구약 중간사』 서울: 살림, 2004.
- _____. 박정수 역. 『유대교와 헬레니즘』 1~3권. 파주: 나남, 2012.
- Hickel, Rudolf. 『독일통일 10년에 대한 중간 평가』 서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2000.
- Josephus, Flavius. 박정수, 박찬웅 역. 『유대전쟁사』 파주: 나남, 2008.
- Klessmann, Christoph. 최승완 역. 『통일과 역사 새로 쓰기: 독일 현대사에서 배운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4.
- Knopp, Guido. 안병익 역. 『통일을 이룬 독일총리들』 서울: 한울, 2000.
- Kocka, Jurgen. 김학이 역. 『독일의 통일과 위기』 서울: 아르케, 1999.
- Kymlicka, Will. 장동진 외 역.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2010.
- Moltmann, Jürgen. 광혜원 역. 『희망의윤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2.
- Muller, Uwe. 이봉기 역. 『대제양,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2006.
- Padilla, C. Rene. 홍인식 역. 『통전적 선교』 서울: 나눔사, 1994.
- Priewe, Jan & Hickel, Rudolf. 한종만 역. 『독일통일비용』 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 Scheuch, Erwin K. & Scheuch, Ute. 김종영 역. 『독일통일의 배경』 서울: 종로서적, 1992.
- Schmidt, Helmut. 오승우 역. 『독일통일의 노정에서: 결산과 전망』 서울: 시와 진실, 2007.
- Sorel, Georges. 이용재 역. 『폭력에 대한 성찰』 파주: 나남, 2007.
- Spicker, Friedemann. 임정택 역. 『논쟁 독일통일의 과정과 결과』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1.
- Stegemann, Ekkehard & Stegemann, Wolfgang. 손성현 · 김관임 역.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서울: 동연, 2012.
- Teltschik, Horst. 윤여덕 역. 『329일: 독일 통일의 기적을 만든 결정적 순간들』 서울: (주)한독산학협동단지, 2007.
- Tutu, Desmond Mpilo. 홍종락 역. 『용서없이 미래없다』 서울: 홍성사, 2009.
- Volf, Miroslav.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2.
- Weidenfeld, Werner & Korte, Karl-Rudolf. 임중현, 신현기, 백경학, 배정환, 최필준 공역. 『독일통일백서』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

Weizsacker, Richard von. 탁재택 역. 『우리는 이렇게 통일했다: 바이츠제커 회고록』 파주: 창비, 2012.

Wolterstorff, Nicholas. 홍병룡 역.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Zelikow, Philip & Rice, Condoleezza. 김태현 외 역. 『독일 통일과 유럽의 변환』 서울: 모음북스, 2008.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6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9일

• 국 문 초 록 •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 내러티브는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지성인 공동체라는 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통일 내러티브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평가는 다른 방식보다는 내러티브 윤리를 통해서 할 때 더 풍부한 이야기꺼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윤리는 교리적 경직성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 우선적 관심을 두는 윤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하버마스의 철학 등에서 볼 수 있듯 굳어진 이념이나 체계보다는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러티브 윤리 개념과 접근은 매우 역동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통일 문제를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에는 가장 적합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일 논의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윤리, 남북통일, 내러티브윤리, 화해, 대화
